

9.11 이후 Lower Manhattan: 창조적 도심을 향한 재건

- 손상된 초강대국 미국의 자긍심과 대도시 뉴욕의 도심
 - 2001년 9월 11일,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의 폭파를 포함한 국제테러사태는 단순한 인명살상과 시설의 파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넘어 미국의 자긍심과 대도시 도시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었음

※ 9.11 사건의 영향

- 약 19,590평에 달하는 부지가 폐허로 변모하였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고 수만 킬로에 달하는 전기, 통신, 하부구조가 파괴됨
 - 두 개의 110층 건물을 포함하여 센터부지내 7개의 건물이 파괴됨
 - 인근 6개 건물 1.3백만 평방미터가 파괴됨
 - 인근 23개 건물내 2백만 평방미터가 파괴됨
- 펜실바니아 Shanksville에 추락한 여객기내 40명이 사망함
- 펜타곤에서 184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함
- 총 사망인원 3,016명 중 월드트레이드센터 근무인원과 인근 거주인 2,792명

- D. Harvey라는 학자는 9.11 사건이 지난 30년간 세계경제의 핵이었던 뉴욕이 쇠락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음
- 9.11 사건 이후, 전개된 일련의 재건과정은 이처럼 손상된 미국의 자긍심과 더 중요하게는 위기에 직면한 뉴욕 도심의 적극적 대응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도시 도심의 역할과 재개발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려 함

재건을 향하여

- 9.11 사건 발생 직후, 뉴욕주지사와 시장의 합의하에 민관파트너십 조직의 로어맨하탄개발공사(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 : LMDC)가 전격 설립됨
 - LMDC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센터를 재건하는 과정을 적극 주도함은 물론, 로어맨하탄 전반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계획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LMDC 산하에 가족, 주민, 소상공인, 예술, 교육, 관광, 금융 등 8개 부문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외에도 시민위원회나 계획 및 비영리조직, 관련 정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
 - LMDC는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될 자금을 정부에 요청함.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주택 및 도시개발국(HUD)의 지역사회개발포괄보조금(CDBG)을 통해 총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긴급 복구자금 및 이후 재건에 소요될 자금을 전격 지원기로 함
 - 이외에 폐허가 된 현장의 복구와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로, 그리고 테러 이후 새로운 행동양식과 삶의 태도 및 가치 등에 관한 시민, 학계 등 각계각층의 활발한 움직임과 토론이 전개됨
-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 재건의 착수
 - 이러한 다각적인 움직임 가운데 무엇보다도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9.11사건의 직접적 영향지역인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의 재건 노력임
 - LMDC는 센터부지에 대한 설계 연구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 2002년 7월 상이한 컨셉을 담은 6개안을 내놓은 뒤, 이 중 하나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특기할만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일반대중을 참여시키는 계획절차에 관

한 것인데, 이른바 ‘Listening to the city’라는 이름의 대규모 이벤트가 기획되었음. 이 이벤트에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 5,000명이 참석하여 컴퓨터의 on-line을 통해 제출된 설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도출함

- 그러나 상기 6개안에 대한 일반대중의 반응은 1개안에 대해서만 만족도가 30%를 넘었을 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센터부지의 재건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재건에 관한 원칙이 부각되는 계기가 됨
- 이는 재건과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LMDC에 의한 여론수렴 절차와 병행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여 및 의견개진이 이어짐
- 가장 주도적이었던 것이 400개 이상의 조직파트너들과 10만 명 이상의 관심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견수렴창구로서 Imagine New York, New York Arts Coalition, Rebuild Downtown Our Town 등 5개 조직의 연합체를 들 수 있음. 이들은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센터부지 재건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재건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사회의 핵심 쟁점을 충족하는 포괄적이고 범도시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9대 원칙을 천명함
 - 기념(remembrance)을 위한 재건
 - 도시 및 지역경제의 재건
 - 모범적 디자인을 통한 재건
 - 교통의 재건
 - 문화에 대한 재건
 - 일자리를 위한 재건
 - 주거를 위한 재건
 -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재건
 - 지역사회를 위한 재건
- 재건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모색과 미래에 대한 성찰로부터 나온 이들 원칙은 이후 LMDC의 프로그램 작성에 반영되고, 혁신디자인에 구현됨으로써 센터부지에 대한 물리적 경관에 용해되어 감

로어맨하탄의 비전과 센터부지의 혁신적 디자인(Innovative Design)

- LMDC는 상기의 9대 원칙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로어맨하탄의 비전을 담되, 혁신디자인 연구를 위한 맥락으로 삼을 수 있는 이른바 ‘로어맨하탄의 비전’(A Vision for Lower Manhattan: Context and Program for the Innovative Design Study, 이것이 통상 program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2002년 10월에 발표함

※ 뉴욕시 로어맨하탄 비전의 주요 내용

- 당시 뉴욕시 블룸버그 시장이 공표한 것으로, 월드트레이드센터 재건과정에서 로어맨하탄이 글로벌 혁신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21세기의 도심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함
 - 육로·지하철·해상교통 등 로어맨하탄을 전세계와 신속하게 연결하는 투자
 - 주택, 학교, 도소매 시설, 그리고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 등 새로운 근린을 형성하는 투자
 - 전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창출하는 투자

○ 혁신적 디자인과 일반대중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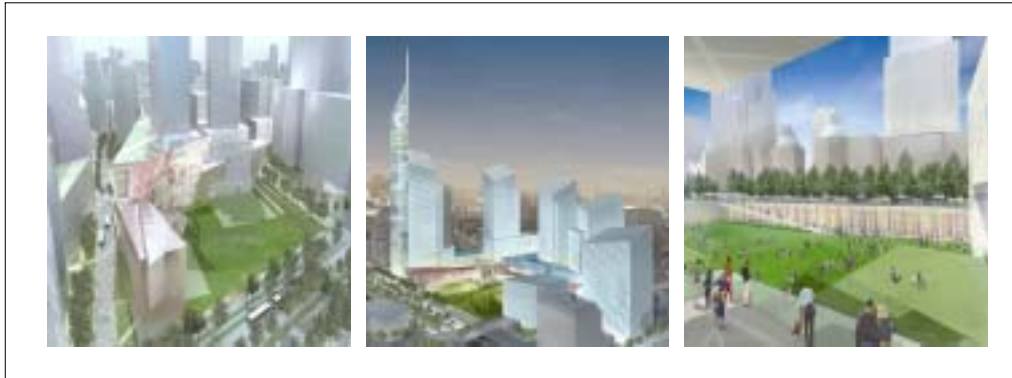
- 도시의 재활성화에 통합되는 센터부지의 재건
- 2002년 6월의 예비적 디자인 컨셉이 시민의 부정적 반응으로 표류하게 된 이후, LMDC는 전 세계의 우수 디자인 및 계획전문가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에 착수, 전 세계로부터 받은 460개의 제안서 중 7개 팀을 선정함



[그림 1]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 재건을 위한 7개 혁신적 디자인(안)

- 여기서 LMDC는 재건계획과정에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담은 대규모 캠페인인 ‘Plans in Progress’를 전개함
 - Winter Garden에서 재건 디자인 전시 : 십만 여명의 방문객 유치, 8,000개 이상의 논평이 제시됨
 - 인터넷상에 디자인 내용 게재 : 수백만 명의 접속
 - 다섯 개 자치구와 롱아일랜드에 동시 TV방영된 3회의 공청회
- 이들 설계안에 대한 평가는 앞서의 시민들에 의한 다각적인 평가의견을 포함하여, 추모환경으로서의 적합성/프로그램 요건의 충족여부/일 반대중의 반응/비전/연계성/대중공간/민간개발의 유인 등의 기준에 의해 로어맨하탄공사와 항만청에 의해 이루어짐
- 2003년 2월 센터부지 설계안으로 독일의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제출한 Memory Foundation안을 최종 선정함. 선정위는 동 안이 미국 민주주

의의 강점과 희생자의 추모를 위한 장엄한 배경을 보존하면서도, 강력한 스카이라인으로 로어맨하탄에 새로운 활기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함



[그림 2] 최종 선정된 Libeskind 스튜디오의 Memory Foundation(안) 개요

- 리베스킨드(안)의 경우, 그 첨탑은 현재 세계 최고인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쌍둥이 빌딩(444.9m)을 능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것인데, 여기에는 층별로 세계 각지의 식물들을 전시하는 식물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음(<http://www.wtcsitememorial.org>)

시사점

○ 창조적 도심의 지향

- 미국의 궁지이자 로어맨하탄의 정신과 경제적 활기를 상징하던 월드 트레이드센터 붕괴 이후, 이의 재건을 향한 일련의 과정과 재활성화 계획은 ‘손상된 도심’을 물리적 환경의 복구와 도심의 역사·사회·문화적 의미의 회복을 통해 ‘창조적인 도심’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임
- 따라서 센터의 재건은 21세기 도심이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성찰이 출현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임. 즉 그것은 경제활동의 집중과 초고층 오피스 숲으로 획일화되고 있는 공간에서

탈피하여 직장-주거-문화-여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중을 위한 공간이 재창출되는 다양성과 창조성이 숨쉬는 공간을 의미함

- 여기에 더해 외부와의 연계와 접근성을 극대화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도심의 재활성화에 본질적 요소로 부상함

○ 개방적인 참여와 포괄적이고 범도시적인 접근

- 센터부지의 재건과정은 희생자의 범위가 도시 전역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각계각층의 개인과 집단이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절차에 입각함. 이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경쟁적으로 투입되어 원칙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그 원칙과 방향이 새로운 경관 속에 자연스럽게 용해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이 되었음
- 로어맨하탄의 경우, 개방적인 참여의 과정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의미를 장소에 붙여넣는 것 외에, 한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문화와 교역이 활발하던 국제적 중심지 맨하탄이라는 역사적 전통과 직(職)·주(住)·객(客)이 혼연일체를 이루었던 지역특성(locality)의 회복에 기초하여 21세기에 다시금 혁신의 글로벌중심지가 되려는 뉴욕의 비전으로 통합되는 계기로도 작용함

○ 전세계로부터 광범위한 지지와 관심을 동원하는 전략적 행동

- 센터부지의 재건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위기관리와 더불어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심리적·정서적 支持를 지속적으로 동원한 점임
- 이와 함께 2002년 중반 6개의 예비적 설계안으로부터 2003년 2월 최종 설계안이 선정되기까지 일련의 재건과정에 대해서도 전세계의 이목과 관심을 촉구하고, 설계안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노력들이 있었음

- 이를 가능하게 했던 몇 가지 요소가 존재함
 - 첫째, 전체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민관파트너십에 기초한 로어맨하탄 개발공사(LMDC)의 설립을 지적할 수 있음. 동 공사는 획기적인 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검토하여 재건과정에 반영함
 - 둘째, 선진 시민사회의 고도로 발전된 사회적 자본이 저변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음. 이는 다양한 공공과 시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경제적 침체시기에 성장의 계기를 촉발시키고, 위기의 시기에 도전과 기회를 재창출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국제적 설계전문가들의 경쟁적 응모를 통해 전세계의 우수 전문가들을 재건과정에 참여시킨 점도 재건의 상징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적인 채널로 작용하였음

정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jbs66@sdi.re.kr